

LUXURY

JULY 2015



Seoul Beauty Spot 50

이국적 분위기의 액세서리

Summer Flower Styling

바닷가재가 있는 여름식탁

Cartier

Artist + M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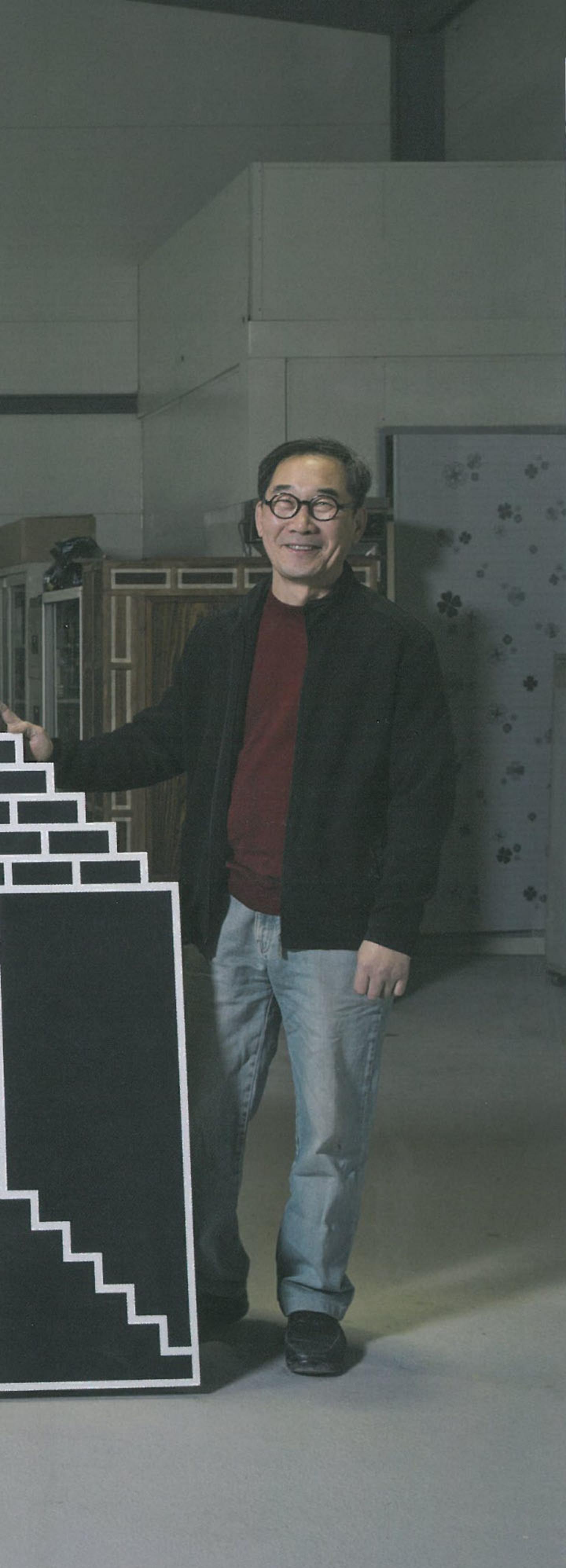
독특한 콘셉트로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 그들의 작업 뒤에는 또 다른 '아티스트'가 있다.

칠, 용접, 주물, 절단, 가공 등 다양한 부문의 장인들은 남다른 눈썰미와

기술력으로 작품의 미감과 완성도를 끌어올리며 작품 제작에 큰 역할을 한다.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유명한 3명의 아티스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장인의 이야기.





홍승혜 작가 + 진영모 & 노원옥 장인

“저는 컴퓨터 모니터에 그림 그리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 두 분이 없었다면 입체 작업을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컴퓨터 이미지의 최소 단위인 픽셀을 교차, 반복, 중첩하면서 유기적 스타일의 작품을 만드는 홍승혜 작가. 네모반듯한 픽셀을 비정형으로 배치하면서 수학적 비례와 조형적 질서가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인다. 2000년부터 그녀는 이 픽셀의 조합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부조浮彫와 조형물을 선보이고 있다. 반듯한 선과 면, 톱니와 계단 형태로 마감한 모서리, 기우뚱 서 있는 절묘한 균형미의 오브제는 크고 묵직한 물감과 함께 평면 작업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이 입체 작업에서 진영모(왼쪽), 노원옥(오른쪽) 선생의 경험과 실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노원옥 선생은 각종 사인물과 옥외 광고물 작업을 30년 이상 해온 도장塗裝 전문가. 알루미늄판의 부식을 막는 방청제 칠 작업부터 바탕색을 여러 번 칠해 두께를 끌어올리는 도막 작업, 표면을 매끄럽게 깎는 샌딩과 색상별 스프레이 분사, 마지막 투명 도장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컨트롤한다. 극장에서 상영작 안내 포스터 그림을 그렸던 형을 도와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술’과 친했다는 그는 “홍 작가님 작품에는 표면에 다양한 형태의 커팅 시트를 붙이는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때 작업자의 내공이 드러나요. 온도나 습도에 따라 시트를 떼어내는 최적의 타이밍이 달라지거든요. 이 공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표면에 칠한 페인트가 따라 올라오거나 말끔하게 분리가 안 돼 마감이 지저분해져요”라고 말했다. 페인트용 도료를 잘못 선택하거나, 페인팅 작업이 치밀하지 않을 경우 도막이 황색으로 변하는 황변黃變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 공정마다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인테리어 브랜드 룸스케이프 최미경 대표가 선생님을 추천해주셨어요. 아주 정확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서리예요. 칠이 벗겨지거나 변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취약한 부분까지 발색을 완벽하게 구현해주셔서 15년간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승혜 작가의 말이다.

진영모 선생은 금속가공 전문 장인. 군 제대 시점부터 용접, 도금 등 금속 가공과 관련한 거의 모든 공정을 섭렵해 도면만 봐도 무게 배분과 비율, 형태에 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철제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음새 처리예요. 용접이 많이 들어가면 작품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구조와 비율을 잘 따져 최소한의 작업만 해야 합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맞물리는 금속 파이프와 파이프 한쪽에 ‘조인트’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레고 블록을 쌓듯이 깨끗한 마감이 가능해지지요. 절삭 가공에 필요한 밀링milling, 와이어나 물의 압력을 이용한 커팅 등 다양한 기술과 기계의 활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대는 디자인을 먼저 하고 이를 어떻게든 구현하는 ‘후後가공업’의 시대. 결국 누가 더 많은 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Reminiscence’, 알루미늄판, 2014년. 국제 갤러리

